

농심 탐방노트

●
음식료
Analyst 김정욱
02. 6098-6689
6414@meritz.co.kr

Comment

1Q17 연결 기준 매출액 +1.9%, 영업이익 +1.3% 성장하며 컨센 부합 예상. 2Q17 이후는 판관비율 전년 수준 유지 및 기존 제품 매출 회복으로 가격인상 효과 반영 예상

국내 라면

가격인상 이후 1~2월 라면 경쟁 심화. 업계 전반적으로 프로모션, 시식행사, 가격할인 집중. 3월 이후는 주력제품(신라면, 안성탕면, 너구리 등)으로 매출 회복세 점유율은 2H16 수준인 55~56% 유지 중. 1Q16 인기였던 프리미엄 짬뽕 라면 시장 감소가 동사에게 오히려 긍정적 (1Q17 프리미엄 라면 매출 감소 효과 농심 150~200억원, 오뚜기 250~300억원 예상)

2Q17 이후 볶음면/비빔면 경쟁 강도는 강화 될 수 있지만 자장/짬뽕과 같은 대중적인 카테고리 부재로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긍정/부정 영향은 미미할 전망. 라면 부문 판관비율은 2Q17 이후 전년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며 60% 수준의 점유율 회복 시 판관비율 개선도 가능

국내 스낵

허니트렌드 소멸로 기존 스낵 제품으로 매출 회복 중. 16.7월 평균 7.9% 가격 인상 효과 이어짐 허니트렌드 소멸 시기에 가격인상으로 증가한 수익을 프로모션에 활용한 부분 주효했음

해외 라면

미국은 두 자리 수 성장세 유지. 중국은 사드 영향 일부 반영되며 5~6% 성장으로 소폭 둔화 미국은 채널의 60~70% 비중이 메인스트림. 신규지역 20% 성장. 기존지역 5~7% 성장. 미국 전체 두 자리 수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중. 중국/미국은 가동률 상승으로 증설 등의 투자도 고려 할 수 있는 상황. 일본은 반한감정으로 전년 수출 부진했으나 회복 중

생수(백산수)

16년 600억원, 17E 800억원, 18E 1,000억원으로 18E Bep 달성 예상. 중국 내 라면/스낵 입점 채널을 활용하고 대리상들을 통해 TT 채널 확장 중. 백산수 국내 점유율 15년 5~6%. 16년 8%로 상승세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4월 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4월 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4월 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정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